한국소비자원 소비에 가치를! 시장에 신뢰를!	보 도 자 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 일시	**2026. 7. 1.(수) 11:00** **<7. 2.(목) 조간>**	배포일	2026. 6. 30.(화)
담당 부서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담당자	김소영 팀장(043-880-5421) 조해령 대리(043-880-5425)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박해범 과장(043-870-5430) 박수진 연구관(043-870-5333)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		김수영 팀장(041-559-0541) 이훈기 연구사(041-559-0543)

바삭함은 살리고, 위험은 줄이고!
에어프라이어 안전 사용수칙 꼭 확인하세요!

- 한국소비자원·국가기술표준원·국립소방연구원,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 캠페인' 실시 -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 국립소방연구원(원장 김연상, 이하 소방연구원)은 에어프라이어로 인한 화재 및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사용수칙을 안내하는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한다.

최근 조리 편의성으로 인해 가정 내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에어프라이어는 종이호일을 잘못 사용하거나, 고온에서 장시간 조리하면 발연, 과열, 화재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최근 5년간('21. 1.~'26. 4.)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정용 에어프라이어 관련 위해정보는 총 490건이며, 그 중 화재, 발연, 과열 관련 원인이 34.7%(170건)를 차지함.

이에 소비자원, 국표원, 소방연구원은 에어프라이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빈 바스켓에 종이호일만 넣은 채 예열하지 말 것, ▲작동 중·직후에는 제품 표면과 바스켓이 뜨거우니 화상에 주의할 것, ▲열풍 배출구가 막히지 않도록 주변 공간을 확보하고,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 두지 말 것, ▲제품 설명서가 권장하는 온도와 시간에 맞춰 조리할 것 등을 당부했다.

3개 기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법'을 홍보 영상과 포스터(붙임 참고)로 제작하여 소비자단체, 가전제품 제조사 등과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홍보 영상은 인공지능(AI) 기반 숏폼 형태로 제작해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산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에어프라이어의 안전한 사용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에어프라이어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에어프라이어 안전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바삭함은 살리고, 위험은 줄이고

에어프라이어 안전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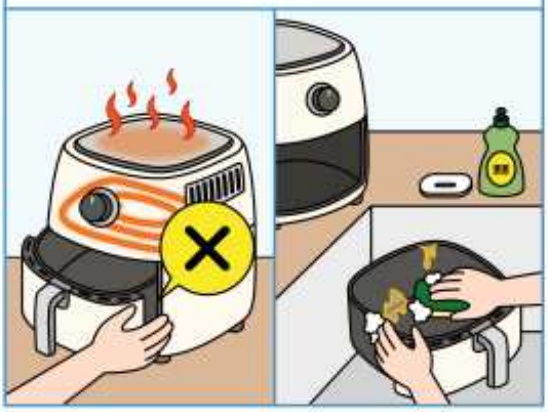
종이호일, 열선에 닿으면 화재 위험!

종이호일은 바스켓 크기에 맞게 사용하고,
빈 바스켓에 종이호일만 넣은 채 예열하지 마세요.
호일이 열선에 닿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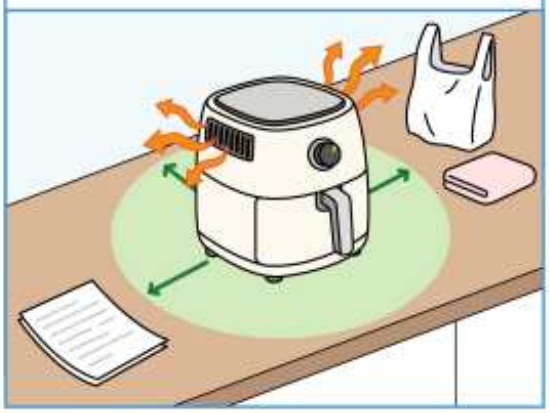
제품표면은 만지지 말고, 기름때는 바로 청소!

작동 중이나 사용 직후에는 제품 표면과 바스켓이 뜨거우니
화상에 주의하세요. 제품을 식힌 뒤 기름때와 음식찌꺼기를
청소해 연기, 화재 위험을 줄입니다.



열풍이 나오는 배출구는 막히지 않게!

제품을 벽면에 붙여 사용하지 말고 충분한 간격을 두세요.
종이,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가까이에 두지 않습니다.



기름은 적게, 온도·시간은 기준대로!

조리에 적합한 식품만 넣어 권장 온도·시간에 맞게 조리하세요.
과도한 기름 사용이나 고온·장시간 조리 시
화재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전수칙 안내 동영상 보러가기 ▶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 국립소방연구원